

韓國中東學會論叢, 第31-3號

韓國中東學會, 2011, 1~30

터키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외교 관계 및 딜레마*

김 대 성**

차 례

- I. 서론
- II. 터키-아제르바이잔 외교 관계
 - 1. 나고르노-카라바흐 전투 발생부터 엘치베이 집권기
 - 2. 하이다르 알리에프와 일함 알리에프의 집권기
- III. 터키-아제르바이잔 외교 관계의 딜레마
- IV. 터키-아르메니아 외교 관계
- V. 터키-아르메니아 외교 관계의 딜레마
- VI. 결론

* 본 논문은 2009년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62-A00007)

*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Abstract>

The Diplomatic Relations of Turkey with Azerbaijan and Armenia and Turkey's Dilemma

Dae Sung,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aucasus region became an important political space for diplomatic relations and energy policy of Turkey after the breakdown of former USSR in 1991. With the collapse of former USSR, Azerbaijan, Armenia and Georgia could be an independent country and appear on international diplomatic stage. These three countries gave chances and clashes at the same time to Turkey because of different geo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mong these countries. The politicians and diplomats of Turkey were burdened with specially coordinating the different geostrategic and economic interests between Azerbaijan and Armenia. Azerbaijan and Armenia have different relationships with Turkey and Russia. While Armenia has been supported from Russia after 1991, Azerbaijan, which has clearly expressed nationalistic tendency, has been shaken conflicts with Armenia for controlling the Nagorno-Karabakh region. Turkey has used the conflict over Nagorno-Karabakh for pressing Armenia to turnover to Azerbaijan.

The pipeline project-BTC pipelines- which will transport gas and oil from Baku to Ceyhan through Tbilisi laid the foundations for economic partnership among Turkey, Azerbaijan and Georgia. Turkey is leading partner in implementing BTC pipeline projects. Through BTC pipeline projects, these three countries can easily cooperate in economic and

diplomatic relationships. But Armenia which has antagonistic relationship with Azerbaijan is uncomfortable toward BTC pipeline. In spite of bad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Azerbaijan and Armenia, Turkey has tried to mend ties with Armenia to enhance Turkey's geopolitical stature in the Caucasus region. In the end, the future of Turkey's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zerbaijan and Armenia depends on settling the conflicts of Nagorno-Karabakh.

Key Words : diplomatic relations, energy policy, Azerbaijan, Armenia, Georgia, BTC pipeline, Nagorno-Karabakh, gas, oil.

I. 서론

냉전시기에 터키가 외교 관계를 체결하지 못했던 카프카스 지역은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터키의 국가 안보와 에너지 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했다. 과거 구소련이 카프카스 지역에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외부 국가의 카프카스 지역 접근을 차단했었으므로 터키 외교정책 입안자들이 이 지역에 대한 정치, 사회적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여건을 갖지 못했다. 카프카스는 지정학적으로 북카프카스와 남카프카스로 나뉘며 남카프카스에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 세 개의 국가가 구소련 붕괴 이후에 독립할 수 있었다. 북카프카스는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으므로 북카프카스 문제는 터키-러시아 관계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카프카스 국가들을 지칭할 때 남카프카스의 세 개의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터키의 대 남카프카스 외교관계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및 그루지아 등의 세 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및 그루지아 등이 독립했으므로, 터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터키와 인접한 세 개 국가 간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3개 국가와의 관계를 순조롭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의 관점에서 터키 정치인과 외교정책 관련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통치기의 남카프카스와의 연고권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새로운 독립 국가의 지위를 획득한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민족주의는 이 두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축소시키는 요소로 해석된다. 터키 정부가 남카프카스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이 두 국가의 민족주의 감정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Tbilisi)를 통과하여 터키 지중해 연안도시 제이한(Ceyhan)에 이르는 BTC 파이프라인 건설을 2006년 7월에 실현하여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 양국과 경제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

만, 러시아는 1999년 11월 터키, 아제르바이잔 및 그루지아 삼개국이 BTC 송유관 건설 계획을 서명하기 이전에 이 송유관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단수 높은 접근을 시도하여 터키를 긴장시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남카프카스는 터키와 러시아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이 명확해 진다. 터키-아제르바이잔-그루지아 간의 협력을 차단하려는 러시아는 구소련 시기에 건설된 기존하는 송유관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비교 우위의 논리를 내세워 BTC 송유관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때 유럽국가 원수나 대표들이 참석했던 유럽안보협력기구(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이 카스피해 원유를 안전하게 수송할 BTC 송유관 건설을 지지함으로써 터키, 아제르바이잔 및 그루지아의 정치, 경제적 접근이 가속화되었다(김대성 2009, 22-24). 러시아와 이란은 카스피해 연안의 에너지 자원이 각각 자국의 영토를 통과하여 국제 시장으로 판매되는 방안을 실현하고자 각축하였다. 이처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및 그루지아는 주변 강국인 러시아, 터키 및 이란의 외교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터키 정부는 카스피해 연안의 원유와 가스를 원활히 공급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 간의 외교 관계를 원활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언어, 인종 및 종교적 유대관계는 두 나라 간의 관계를 결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관계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1915년 오스만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을 주장하며 현재 터키에게 그것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 주장을 부정하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간의 외교 관계 정상화 과정은 순조롭지 않게 전개돼 왔다.

이 글에서는 터키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외교 관계가 고찰될 것이며, 시기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독립 단계부터 2009년 후반기까지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독립 직후부터 외교적 갈등관계에 있었던 터키와 아르메니아 간에 2009년 10월 10일에 외교관계 정상화 방안이 각국의 외무부 장관에 의해 가서명되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방안의 가서명을 전후로 2009년 후반기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밀월 관계는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터키, 아제르바이잔 및 아르메니아 삼국 간에 새로운 외교적 딜레마가 유발되었다. 그렇다고 터키와 아르메니아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방안의 가시성이 이 두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터키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외교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외교 관계의 당사국인 두 국가 외에도 이 지역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러시아 및 EU 등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 연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II. 터키-아제르바이잔 외교 관계

1. 나고르노-카라바흐 전투 발생부터 엘치베이 집권기¹⁾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독립 후 신생국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보전과 국제 사회로의 편입을 지원하였으며 양국 간의 외교,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언어, 문화, 인종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정치, 경제적으로 유대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독립 직전부터 양국 간에 전개된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gh: NK) 전투는 터키-아제르바이잔 외교 관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터키는 NK 문제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결되는 것을 지지하며 아르메니아의 NK 점령을 비난하는 동시에 아제르바이잔으로 NK의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89년 통계에 따르면 NK 자치구에는 아르메니아인이 13만 7,200명

1)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에빌페즈 엘치베이(Ebülfəz Elçibey) 재임기 (1992.6.7.-1993.6.4.) http://tr.wikipedia.org/wiki/Ebulfez_El%C3%A7ibey (검색일: 2010년 10월 10일)

(73.4%), 아제르인이 4만 7,400명(25.3%)이었다. NK 자치구는 아제르바이잔 내에 있으면서도 자치권을 누렸으며 아르메니아의 영향력으로 아르메니아어가 관공서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구소련 말 고르바췌프 통치기에 개혁과 개방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NK 자치구 내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아제르인들을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988~89년 기간에 200명 이상의 아제르인들이 아르메니아인들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고 20여만 명의 아제르인들이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이주했다. 인구의 약 3/4을 차지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NK의 자치구를 아르메니아와의 합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아제르인들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NK 지역에서 아제르인과 아르메니아인 사이에 갈등은 1988년 본격화되었다. NK 자치구 소비에트(평의회)는 1988년 2월 20일 구소련, 아제르바이잔 및 아르메니아 소비에트에게 각각 알려져 아제르바이잔에서 이탈하여 아르메니아에게 소속되기를 바라는 소속 변경을 신청했다.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는 NK가 현재 소속된 아제르바이잔의 동의 없이는 소속변경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구소련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NK의 소속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Oran 2004, 401). NK 분쟁 초기 단계에서 구소련 소비에트는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을 지지했다. 소련 내 자치국가의 국경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원칙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소련 소비에트와 아제르바이잔에 맞서서 1989년 12월 아르메니아 소비에트와 NK 자치구 의회는 공동으로 아르메니아와 NK 통합을 선언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으며, 나고르노 지역에서도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아제르인 수십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의 반정부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아제르바이잔 민족주의 세력 간에 충돌이 발생하자 고르바초프는 1990년 1월 20일 소련군을 바쿠에 파병해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1991년 말부터 1992년 초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에 전쟁으로 번졌다.

이 기간에 구소련이 해체되자 아제르바이잔(1991.8.30)과 아르메니아(1991.9.23)가 각각 독립을 선포했다. NK 자치구도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을 선언한 뒤 사흘이 지나서 독립을 선언했다. 아르메니아는 구소련군 장교들의 도움을 받아 아르메니아 군대를 창설했으며 소련군에서 전역한 아르메니아인 장교들을 군간부로 임명하여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했다. 1992년 2월 아르메니아 군대는 러시아 군대의 지원을 받아 NK 자치국 내에 위치한 호잘리(Hocali; Kocali)를 점령해 이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이 사태로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해 613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000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다. 1992년 5월에 아르메니아와 NK 자치구를 연결하는 라친(Laçin) 회랑(回廊) 지대가 아르메니아에 의해 점령되었다. 마침내, 1993년 아르메니아는 NK 자치구 주변의 6개 군(郡:Rayon)인 칼바자르, 아그담, 자브라일, 구바들리, 피줄리, 장길란 등을 점령했다(류광철 2009, 42-43). 카라바으 서남쪽 중간에 위치한 라친 회랑 지대는 아르메니아와 NK 자치구를 육로로 연결할 수 있어서 아르메니아에게 전략적 우위를 확보해 주었다(Oran 2004, 401). 아르메니아의 카라바으 및 카라바으 주변부 6개 군 점령과 나흐치반(Nahçivan)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카프카스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진 터키와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도 카프카스 갈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Kasım 2001, 185-195). 1992년 아르메니아 군대의 나흐치반 공격이 터키

군대의 개입을 유발시킬 발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예견되고 있을 때, 러시아도 터키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아르메니아를 지지하는 외교적 발언을 주저하지 않았다. 독립국가연합 총사령관 사포시니코브(Shaposhnikov)는 터키의 군사 개입은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터키의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려 했다(Zaman 1992, 8).

카라바흐 갈등을 지켜보던 터키 여론은 아제르바이잔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터키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입하도록 압박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는 터키 여론에도 불구하고 터키 정부는 한편으로 아르메니아를 지지하는 러시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EU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터키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아제르바이잔 입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아제르바이잔이 취하고 있는 무역금지 조치에 동참하여 터키-아르메니아 간 무역을 중단했으며 아르메니아와의 외교관계를 한시적으로 동결하였다. 터키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는 행위를 비난했으나, 아제르바이잔에게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개입을 자제했다.

터키는 1991년 11월 9일 아제르바이잔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다른 어떤 국가들에 비해서 먼저 아제르바이잔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에빌페즈 엘치베이(Ebülfəz Elçibey)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엘치베이가 범터키주의를 강조하며 심지어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간에 연방 구성을 바란다는 친터키주의자라는 평가 때문에 오히려 터키 정부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 독립 후 구성된 야당인 인민전선의 지도자인 엘치베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탈CIS 및 친터키주의를 표방했다. 엘치베이는 친터키 정책을 추진하면서 심지어 이란내 친아제르바이잔 세력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이란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엘치베이는 1992년 독립국가연합(CIS)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아제리어를 국어로 선포하여 러시아의 불쾌감을 자극했다(류광철 2009, 389). 엘치베이의 범터키주의의 강조 때문에 지역 강대국인 러시아와 이란이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밀착관계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아제리(Azeri)어를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전환하는 작업을 도왔다. 터키 정부는 NK 자치구 갈등 사태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을 지지했다. 양 국가 간에 무력 충돌이 진행되던 1992년 2월 호잘리 지역에서 아제르인 민간인이 아르메니아 군인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터키인들의 여론을 의식한 터키 정부는 1992년 3월 2일 터키 영공을 통과하여 아르메니아로 가는 비행기에 무기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터키 수상 데미렐(Demirel)이 1992년 3월 19일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와 인터뷰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군사적 충돌에 터키의 군사개입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5월 17일 라친 회랑이 아르메니아에 의해서 점령된 뒤 아르메니아의 나흐치반 공격이 임박해지자 나흐치반 자치공화국 의회 의장 하이다르 알리에프(Haydar Aliyev)가 터키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터키 정부도 무력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고, 그 대신 UN,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NATO 집행부에 양국가 간 무력 충돌의 해결을 위한 중재 방안을 요청했다(Aydın 2005, 119).

NK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방식을 둘러싸고 터키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급기야 대통령과 수상 간에 의견 충돌로 번졌다. 대통령 외잘(Özal)은 군사적 개입까지 고려하는 강경한 견해를 제시한 반면에, 수상 데미렐(Demirel)은 군사적 개입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당의 당수이자 수상인 데미렐이 정치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권 내에 온건파가 다수를 차지해 터키 정부는 무력 개입을 피하게 되었다(Bölükbaşı 1997, 85).

1993년 4월 아르메니아 군대에 의해 카라바흐 남서쪽에 접해 있는 켈베체르(Kelbecer)가 점령된 후 당시 엘치베이가 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나흐치반 자치공화국 의회 의장 하이다르 알리에프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NK 전쟁에서 영토의 일부 상실, 여당 인사들의 부정부패 및 경제상태의 악화 등으로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때 후세이노프

대령이 1993년 6월 엘치베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엘치베이 대통령이 나흐치반으로 망명하자, 아제르바이잔 국민평의회가 나흐치반 자치공화국 의회 의장 하이다르 알리에프를 초청하여 국민평의회 의장으로 추대했고 7월 24일에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²⁾.

엘치베이의 권력 상실에 대해서는 터키 내외의 정치권에서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았다. 당시에, 터키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의 친터키 정치 지도자인 엘치베이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지원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러시아의 영향력에 밀려 엘치베이의 정권 유지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돌았다(류광철 2009, 63). 사실상, 엘치베이는 탈러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CIS 가입을 거부함으로써 러시아의 보복을 야기시켰다.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자 장비 공급이나 용병 지원을 통해 대아르메니아 군사 지원을 강화했다. 따라서 NK 전쟁은 점차 아르메니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적극적인 친터키 정책을 무조건 환영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터키 고위 정치권 인사들은 엘치베이의 일방적인 친터키 정책이 러시아-터키 간에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터키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류광철 2009, 391-392). 러시아와 심지어 이란을 자극했던 엘치베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범터키주의의 강조를 불편하게 여긴 터키 수상 데미렐을 비롯한 고위 정치권 인사들이 별다른 도리 없이 엘치베이의 권력 상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구소련의 해체로 인해 남카프카스에서 권력 공백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NK 자치구를 자국의 중앙 행정체제로 편입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결국 양국 간의 전쟁으로 확산되었다. 전쟁이 전개되면서 터키는 아제르바이잔,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외교적, 전략적으로 지원하였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외교,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으나, 범터키주의를 강조하는 엘치베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고 러시아와 심지어 이란을 의식했으므로 터키 정치권 내에서

2) 하이다르 알리에프는 1993년 10월 단독 출마한 대선에서 98.9%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1998년 10월 76%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2003년 12월 심장혈관의 장애로 유명을 달리했다. 참고: 류광철 2009, 390.

강경파와 온건파로 의견이 나뉘었고 친터키주의 대통령인 엘치베이의 권력 상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모를 겪었다³⁾. NK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대 아제르바이잔 외교 정책을 변경하였다. NK 분쟁 초기에는 구소련 소비에트가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독립한 뒤, 아제르바이잔 민족전선의 지도자인 엘치베이가 대통령이 된 뒤 아제르바이잔이 친터키 정치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쪽으로 편향된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이다(장병옥 2006, 46).

2. 하이다르 알리에프와⁴⁾ 일함 알리에프의⁵⁾ 집권기

하이다르 알리에프(H.Aliyev)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뒤에도 NK를 두고 전개되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충돌이 나흐치반으로 확산될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터키 정부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나흐치반은 터키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으므로 아르메니아의 나흐치반 공격은 터키 안보에도 위해(危害) 요인이 될 수 있었다(류광철 2009, 403). 1993년 9월 8일 터키 외무부 장관 히크메트 চে틴(Hikmet Çetin)은 아르메니아의 나흐치반 군사공격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에 비유하는 한편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인 다수 지역인 나흐치반 공격을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에 대한 전쟁개시로 간주한다고 경고하고 국제사회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크메트 চে틴 장관은 "이 지역과 관련해 터키와 러시아가 강력한 협력관계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러시아의 개입으로 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3) BBC.co.uk (15 Jan 2008), Regions and territories: Nagorno-Karabakh;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아제르인과 아르메니아인 사이에 충돌이 고조되면서 다수의 아제르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던 카라바흐와 아르메니아 지역을 떠났고, 동시에 다수의 아르메니아인들 또한 아제르바이잔을 떠났다. 군사적 충돌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난 아제르인과 아르메니아인은 난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4) 하이다르 알리에프(Haydar Aliyev)의 집권기(1993.6.5.~2003.10.15), http://tr.wikipedia.org/wiki/Haydar_Aliyev (검색일: 2010년 10월 12일)

5) 일함 알리에프의 집권기(Ilham Aliyev: 2003. 10.31~현재) http://tr.wikipedia.org/wiki/%C4%B0lham_Aliyev (검색일: 2010년 10월 15일)

말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했다⁶⁾.

터키 정부는 H. 알리에프가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도 종전과 같이 외교,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취했다. H. 알리에프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의식해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에 가입했는데, 터키 정부도 알리에프의 친러시아 행보를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겼다. H. 알리에프는 범터키주의를 내세우던 엘치베이 전 대통령과는 달리 터키와 러시아를 의식해서 양국과 균형 외교를 지향하는 성향을 보였다. H. 알리에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1993년 9월 엘치베이 정권이 터키와 체결한 다양한 교류 협정의 실행을 미루겠다고 발표하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주둔하던 1,600명으로 이루어진 터키 부대의 귀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터키인들의 아제르바이잔 입국시 사증면제를 취소하고 비자 발급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H. 알리에프는 터키와의 경제협력을 여전히 중시했다. 1993년 9월 19일 터키 외무부 장관 히크메트 체틴이 바쿠(Bakü)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 H. 알리에프를 예방했으며 이때 아제르바이잔 원유 수출 수송로로 터키 계획안을 선택했다고 공식화했다. 1994년 1월에는 H. 알리에프 대통령이 앙카라에 국빈으로 방문했으며 터키 대통령 술레이만 데미렐과의 긴밀한 친분을 언급하는 동시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동일 민족인 두 나라”라고 호칭함으로써 터키와의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Oran 2004, 406). H. 알리에프는 아제르바이잔 원유 수출 파이프 라인으로 바쿠에서 출발하여 그루지아의 트빌리시(Tbilisi)를 거쳐 터키 지중해 제이한(Ceyhan)으로 연결되는 BTC 라인을 지지한다고 재차 확인하였다(Fuller 1994, 7-11).

H. 알리에프의 집권 후 1994년 5월 CIS 국가 의회대표단 회의가 개최된 비슈케크에서 러시아의 중재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에 휴전이 성립되었다. 카라바그가 아르메니아의 통제 하에 놓인 상태로 휴전이 성립됐으므로, 카라바그를 둘러싼 갈등은 종결된 것은 아니다. UN에서도 NK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1994년 10월 말 UN 사무총장 갈리는 바쿠와 에리반

6) 연합뉴스, 1993년 9월 9일; 1993년 러시아와 터키의 국경협정으로 아르메니아인이 다수인 카라바그가 아제르바이잔에 편입됐으며, 터키와 아르메니아 사이에 아제르바이잔인 자치지구인 나흐치반이 수립됐다.

을 방문하여 NK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보전하고 유지한다.
- 아제르바이잔 국경을 불가침 지역으로 선포한다.
- NK 분쟁 해결 방법의 하나로 무력사용을 금지한다.
- 아르메니아는 군사작전으로 불법 점령한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반환한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측은 유엔 사무총장의 해결 방안에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Smolansky 1995, 217).



1996년에 들어서서 터키 국회의원 일행이 바쿠를 방문했고 H. 알리에프는 이들과 접견했을 때 터키-아제르바이잔 간에 정치적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1997년 5월 H. 알리에프는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터키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터키와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 H. 알리에프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와의 관계 증진을 시도했다.

서방 선진국과 터키, 아제르바이잔 및 그루지아는 외교, 경제적 교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시적인 합의안을 내놓았다. 1999년 11월 18-19일에 걸쳐 진행되고 63개국 국가 원수나 대표들이 참석했던 유럽 안보협력기구에

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은 대 카스피해 접근을 통해서 석유 및 가스 에너지 확보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카스피해 원유의 송유관 건설을 둘러싸고 미국, 러시아와 이란 간에 진행됐던 송유관 주도권 확보전에서 터키와 미국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등 3개국은 1999년 11월 18일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에서 그루지아의 트빌리시(Tbilisi)를 거쳐 터키 남동부 지중해 연안도시 제이한(Ceyhan)에 이르는 총연장 1,730Km의 BTC 송유관 건설계획에 서명했다. 송유관은 아제르바이잔에 468Km, 그루지아에 225Km, 터키에 1037Km로 구성된다. 송유관 건설계획 안 서명식에 터키 대통령 술레이만 데미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하이다르 알리에프, 그루지아 대통령 에두아르드 세바르드나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사파르무라트 투르크멘바쉬,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이예프 등이 참석하여 서명했다(김대성 2009, 22).

미국과 서구의 지원을 받은 H. 알리에프는 2001년 9.11 사건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미국과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H. 알리에프는 아제르바이잔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원유를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통로인 BTC 파이프라인 건설을 중요한 정치, 경제적 목표로 삼았다. BTC 파이프 라인의 최종 도착지가 터키의 제이한이었으므로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Kasim 2009, 25, 99).

H. 알리에프가 2003년 12월 심장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나 아제르바이잔의 대 터키 외교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H. 알리에프가 사망하기 전 그의 아들 일함 알리에프(Ilham Aliyev)는 2003년 10월 1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76.8%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H. 알리에프 전 대통령의 터키와 러시아 간의 등거리 외교와 친서방과 개방 정책을 유지할 뜻을 가졌기 때문이다.

2006년 5월, 마침내 BTC 파이프 라인을 통해 원유 운송이 시작됨으로써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간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길이 열렸다. BTC 파이프 라인의 총공사비는 대략 29억 달러에 이른다(Babali 2006, 175-177). 직경 42인치 파이프 라인을 통해 일일 최대 100만 배럴의 원유가 운송될 수 있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운송을 넘어 바쿠-트빌리시-

터키의 카르스에 이르는 철도 건설에도 합의했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나흐치반-터키 국경을 개방하여 육로를 통한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류광철 2009,138, 235). 아제르바이잔 인구가 2010년 기준으로 905만 여명에 이르고 2009년 기준으로 아르메니아 인구 324만 여명에 비해 약 세배에 이르므로 터키는 정치, 문화적으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바쿠-트빌리시-터키를 연결하는 철도가 완성된다면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kasım 2009-1, 64).

Ⅲ. 터키-아제르바이잔 외교 관계의 딜레마

2008년에는 형제국가로 여겨지던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간에 외교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었다. 미국과 EU는 아르메니아인 이주자 단체의 로비에 영향을 받아 터키에게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미국과 EU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관계 정상화를 통해 아르메니아를 친 EU 권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 터키 국내적으로도 터키와 아르메니아 간에 국경을 개방하여 무역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시되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 간의 육로를 통한 국경 무역은 터키 동부 지역의 경제가 호전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양국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터키-아르메니아 양국은 2008년 9월에 계획된 월드컵 지역 예선 국가대표 축구팀 경기를 활용하여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kasım 2009-2, Journal of Turkish Weekly).

터키-아르메니아 간 국교 정상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터키-아르메니아 관계 정상화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터키를 방문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함 알리에프는 터키의 아르메니아 관계 정상화 시도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2009년 4월 6-7일에 터키에서 개최되는 문명연합(The Alliance of Civilizations) 정상회의에 참석을 취소했다. 일함

알리에프는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의 동의 없이 관계 정상화를 진행한다면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정책을 친터키와 친서구 정책에서 친러시아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터키-아르메니아간 국경의 개방은 아제르바이잔의 국익을 침해하므로 아제르바이잔도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것이다⁷⁾. 아제르바이잔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터키 수상 타입 에르도안(Tayyip Erdogan)이 5월에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터키는 NK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아르메니아에게 터키 국경을 개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했다(Kasim 2009, 100-101). NK 문제의 해결은 아제르바이잔 정치권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아제르바이잔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NK 충돌 사태로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20% 정도가 아르메니아의 점령 하에 있으며, 2만 여명의 사망자와 5만 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지역을 떠난 난민 백만 명 정도가 아제르바이잔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다(Oran 2004, 401).

터키-아르메니아 국교 정상화를 두고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민족주의 진영은 터키-아르메니아 국교 정상화를 대체로 반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민감한 시점에서 터키-아르메니아는 2009년 8월 31일에 외교관계 정상화 방안에 각국의 외무부장관이 가서명하였다. 가서명된 관계 정상화 방안은 6주간의 논의 뒤에 각 국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관계 정상화 방안은 양국의 국경과 관련하여 국제법에서 의해서 인정되는 양국가의 국경을 수용할 것으로 확인하였다. 2008년 9월에는 터키 대통령 압둘라 귄(Abdullah Gül)이 양국 국가축구대표 팀의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아르메니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여 아르메니아의 수도 에리반(Erivan)을 방문한 것이 아제르바이잔 정계와 국민들에게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NK 문제가 아르메니아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터키-아르메니아 간의 국경

7) Shahin Abbasov, "Azerbaijan: Is Baku Ready to Cause Geopolitical Problems over Turkish-Armenian Thaw?", Eurasia Insight;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b/eav041409.shtml>, (검색일 2009년 4월 13일)

은 아르메니아의 NK와 그 주변 지역 점령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1993년 터키에 의해 봉쇄된 바 있다⁸⁾.

휴전협상으로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양국 간의 전투가 종결되었으나 영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후속 대책이 없는 가운데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양국 대통령을 비롯해 실무자급 외교관이 간헐적으로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르메니아가 차지한 점령지 반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터키 정부도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압력을 의식해서 아르메니아 점령지인 NK 지역이 아제르바이잔에게 반환되기 전에는 터키-아르메니아국교 정상화는 실현될 수 없을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 터키는 국내에서 아르메니아와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아제르바이잔 및 아르메니아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해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IV. 터키-아르메니아 외교 관계

터키와 아르메니아 외교 관계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관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NK 문제를 둘러싸고 1980년대 말부터 군사적으로 충돌하였고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입장을 지지하는 친 아제르바이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터키와 아르메니아 양 국가가 우호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외교적 환경에 놓여 있다.

터키는 구소련 해체 직후 독립을 선언한 아르메니아를 1991년 12월 16일에 어떠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승인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아르메니아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였다. 1988년에 이미 NK를 둘러싸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에 갈등이 시작돼 아제르바이잔을 의식하고 아르메니아 독립 승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일부 범터키주의의 강조

8) Border Between Turkey and Armenia to Be Opened After Resolving..., Journal of Turkish Weekly, 14 April 2010.

하는 정치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터키 정부는 아르메니아의 독립을 승인했다. 아르메니아 초대 대통령 페트로시안(Petrosyan: 1991-1998. 3월)도 아르메니아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실현하려면 아르메니아인들이 오스만터키 제국 통치기의 역사적 구원(舊怨)을 잊고 터키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터키 측에서도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정상화는 두 가지 면에서 현실적으로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첫째, 터키가 아르메니아를 통하여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둘째, 미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 이주자들의 오스만터키 말 1915년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 주장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Oran 2004, 407).

1991년 8월 23일 아르메니아 국회가 의결한 독립선언서의 11조에서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1915년 오스만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독립선언서 11조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간의 관계 정상화에 일종의 장애물이 된 것이다. 또한 아르메니아 국회에서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을 결정할 1921년의 카르스(Kars) 협정의 무효화가 언급됨으로써 양 국가가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견되었다.

터키는 NK를 둘러싼 충돌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르메니아에게 식량 지원과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가 터키를 통과하도록 허용했으며 더 나아가 터키로부터 전기 구입과 관련하여 협정을 맺기도 했다. 아르메니아에 대한 터키의 호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 혁명연맹을 위시한 급진적인 영토회복주의 집단과 아르메니아인 재외동포 집단이 오스만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 학살과 카르스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터키 정부나 국민들이 아르메니아의 주장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고 여론에서도 반 아르메니아 의견이 거세게 나타났다(Kasim 2009, 102-103).

1993년 4월 아르메니아 군대에 의해 카라바흐 남서 쪽에 접해 있는 켈베제르(Kelbecer)가 점령된 뒤 터키 정부는 터키-아르메니아 국경의 봉쇄를 결정했다. 켈베제르 점령 직후, NK 충돌이 나흐치반으로 확산될 움직임이 나타

나면서 터키 정부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류광철2009, 390). 특히, 나흐치반은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아르메니아의 나흐치반 공격은 터키 안보에도 위해(危害) 요인이 될 수 있었다. 터키가 터키-아르메니아 국경 봉쇄를 결정한 배경에는 아르메니아의 나흐치반 공격 가능성 이외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서 1915년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주장과 카르스 협정 무효화를 들 수 있다.

터키 정부가 오스만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인정하게 될 경우, 아르메니아는 오스만터키의 후속 국가로서 터키에게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르메니아 국회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을 결정한 1921년의 카르스(Kars) 협정의 무효화를 논의하고 있어서 터키 정부도 단호한 대안을 취하게 되었다(김연규2008/2009, 171).

터키 정부는 오스만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의 집단살해가 민족 파괴를 의도한 시도라는 주장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아르메니아인의 대규모 피살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오스만터키 군대의 병참 지원통로 근방에 살던 아르메니아인들을 시리아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저항했던 아르메니아인들과 터키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로 평가했다. 아르메니아인의 강제이주 대상은, 오스만터키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아르메니아인 그룹과 이들에게 병참 지원을 했던 그룹이었다⁹⁾. 터키는 터키-아르메니아 양국이 학살진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뉴욕에 본부를 둔 비정부 조직인 인권보호 단체로서 “변동기의 정의를 위한 국제센터”(ICTJ: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가 200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1915-1918년의 아르메니아인 집단살해를 UN협약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인종대량학살(Genocide)로 규명하였다. 터키 정부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재배치 과정에서 터키인과 아르메니아인 간에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라고 강조했다(Cooper and Akcam, 2005, 84).

9) Yusuf Halaçoğlu, "Ermenilerin Suriye'ye Nakli: Sürgün mü, Soykırım mı? Belgeler", 참고: <http://www.ttk.org.tr/index.php?Page=Sayfa&No=99> (검색일: 2010년 10월 5일)

2007년 4월에는 5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 모임이 1915-1918년 아르메니아인 집단살해를 인종대량학살이라고 발표해 터키 정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노벨 수상자 모임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게 화해를 요청하며 3 가지 실천 사항의 명시했다: 첫째, 무조건적인 외교관계의 수립, 둘째, 양국 국경의 개방 그리고 셋째, 민간 사회단체 간의 교류 등이었다. 그러나, 터키 수상 에르도안(Erdogan)은 양국의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 선전활동의 중지와 NK 문제의 해결”이 선행 조건이라고 명백히 밝혔다¹⁰⁾.

터키가 1993년에 아르메니아 국경 봉쇄를 결정한 배경은 경제적으로 아르메니아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아르메니아는 생활 필수품을 주로 터키로부터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아르메니아 국경 봉쇄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터키 정부는 판단했다. 터키-아르메니아 국경 봉쇄로 인해 터키의 상품이 그루지야를 통해 우회하여 아르메니아로 수출되고 있어서 일부 상품 가격의 상승이 뒤따를 수 있으나 아르메니아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코차리안(Robert Kocharian: 1988-2008. 3월)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오스만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주장을 국제적 이슈로 크게 부각시켰다. 아르메니아 정부와 재 프랑스 아르메니아인 이주자들은 프랑스 정부가 오스만터키의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을 공식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코차리안 정부는 NK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2006년 9월 나고르노-카라바흐(NK) 독립 15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코차리안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NK의 독립을 NK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¹¹⁾.

2005년 4월 10일, 터키 총리 타이프 에르도안(Tayyip Erdoğan)은 1915년의 아르메니아 학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역사학자와 기타 전문가 중심의

10) Emil Danielyan, "Nobel Laureates Call For Armenian-Turkish Reconciliation", Radio Free Europe, April 10, 2007. <http://www.rferl.org/content/article/1075779.html> (검색일: 2010. 9. 20)

11) http://en.wikipedia.org/wiki/Robert_Kocharyan (검색일: 2010. 9. 25)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아르메니아 대통령 코차리안(Kocharian)에게 제의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공동조사위원회에게 터키와 아르메니아 공문서 보관소를 비롯해 필요하면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및 미국의 공문서 보관소에서 조사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2005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George W. Bush)도 터키의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안의 제안을 지지했고 이러한 제안이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¹²⁾.

V. 터키-아르메니아 외교 관계의 딜레마

2008년 8월에 러시아와 그루지아 간의 전쟁 발발로 그루지아가 아르메니아 국경을 봉쇄하자 아르메니아 정부는 해외진출을 위한 육로 출구가 완전히 막히게 되었다. 아르메니아는 터키, 아제르바이잔 및 그루지아 삼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터키 정부도 대 아르메니아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미국과 EU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다. 미국과 EU는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아르메니아를 EU 영향권으로 일부 흡수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터키와 아르메니아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회를 찾아야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2008년 9월 아르메니아는 수도 에리반(Erivan)에서 진행되는 월드컵 지역 예선 터키-아르메니아 경기의 관전을 위해 터키 대통령 압둘라 귈을 초청했다. 압둘라 귈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대통령 세르즈 사르그시얀(Serzh Sargsyan: 2008. 4. 9.~현재)의 초청을 받아들여 터키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아르메니아를 방문했다. 축구외교로 시작된 양국가 대통령의 회담이 양국의 관계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터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 정부를 비롯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다(Kasim 2009, 105).

12) <http://www.free-lebanon.com/LFPNews/2009/April/April9/April9c/april9c.html>
(검색일: 2010. 9. 30)

터키-아르메니아 간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은밀히 진행된 사전 교섭은 아르메니아 국민과 정치권에서 논란과 당혹감을 불러 일으켰다. 외교 관계 정상화를 목적으로 1915년의 아르메니아인 대학살과 NK 문제 또한 아르메니아에게 불리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¹³⁾. 부연하자면, 아르메니아 국민들이 아르메니아 정부가 터키-아르메니아 국경 개방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현안의 논의 과정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 간의 은밀한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르메니아 외무 장관 날반디안(Nalbandian)이 사임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았고, 아르메니아 연립 정권 파트너인 다스낙 당(Dashnak Party: Armenian Revolutionary Federation)은 연립내각에서 이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터키-아르메니아 간 관계 정상화 계획으로 터키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확대되었다. NK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터키와 아르메니아 관계 정상화 논의는 아제르바이잔을 소외시키는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의 아르메니아 국경 봉쇄를 자국에게 유리하게 N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압박 카드로 보고 있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NK 문제의 해결이 수반되지 않는 터키-아르메니아 간 국경 개방을 터키 여론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터키-아르메니아 국경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의 핵심인 BTC 에너지 파이프 라인의 사용을 재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제르바이잔의 반발을 의식해서 터키 총리 에르도안은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하나의 민족 - 두 국가"라고 강조하며 터키-아르메니아 관계 정상화는 NK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진행할 뜻을 밝혔다¹⁴⁾.

터키와 아르메니아 내에서 양국간 국경개방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 두 나라는 스위스 쥐리히(Zurich)에서 2009년 10월 10일

13) The Wall Street Journal, Turkey, Armenia to Reopen Border, 2009년 10월 11일

14) Christian KOLTER, The Turkish-Armenian Border and the Karabakh Conflict: Normalisation as Geopolitics, 2009. Dec. 4, http://www.caucaz.com/home_eng/breve_contenu.php?id=362 (검색일: 2010. 9. 30)

에 외교관계 정상화 방안에 각국의 외무부 장관이 가서명하였다. 관계 정상화 방안은 6주간의 논의 뒤에 각 국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관계 정상화 방안은 양국의 국경과 관련하여 국제법에서 의해서 인정되는 양국가의 국경을 수용할 것으로 확인하였다. 관계 정상화 방안에서 양국은 선린 우호관계에 부적합한 정책을 시도하지 않으며, 테러, 무력 및 모든 과격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관계 정상화 방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2개월 내 양국간 국경의 개방이 합의되었다(Kasım 2009, 107-108; http://www.caucaz.com/home_eng/breve_contenu.php?id=367).

관계 정상화 방안의 가서명 이후 아르메니아 대통령 사르그시야도 터키-아르메니아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지역예선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서 2009년 10월 14일에 터키를 방문하여 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터키-아르메니아 국교 정상화는 터키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터키-아르메니아 국경의 인정과 아르메니아 대학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보면 터키-아르메니아 국경 개방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터키-아르메니아 국교 정상화의 우선순위가 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각 국가의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교 정상화 방안의 가서명 이후에 터키를 비롯해 아르메니아 및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아르메니아 간 국교 정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져 국교 정상화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아르메니아 내의 국교 정상화 반대 진영은 1915년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1921년 카르스(Kars) 협정에 따른 현재의 터키-아르메니아 국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터키 내에서는 터키가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에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에게 NK지역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거세졌고,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아르메니아에게 외교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¹⁵⁾.

15) Yalın Eralp, Şeytan Üçgeni: Türkiye, Azerbaycan ve Ermenistan, <http://www.cnnturk.com/yazarlar/yalim.eralp/seytan.ucgeni.turkiye.azerbaycan.ve.ermenistan/39.2182>(검색일: 2010년 11월 1일)

이밖에도, 터키는 아르메니아와의 국교 정상화를 시도한 주요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터키가 아르메니아와의 국교 정상화로 카프카스 지역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터키가 카스피해와 흑해 지역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주요 행위자임을 EU 집행부에 확인시켜 터키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시키는 것이다(Torbakov 2010, 34). 셋째, 터키-아르메니아 국교 정상화는 아제르바이잔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NK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터키의 순진하면서도 모험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터키-아르메니아 국교 정상화 시도는 처음에 예상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외교 관계를 둘러싸고 터키는 외교적 딜레마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VI. 결론

구소련의 붕괴로 남카프카스 지역은 터키의 국가 안보와 에너지 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했다. 남카프카스는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지역이어서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각기 다른 외교적 행보를 취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각기 상이한 대 터키 및 러시아 관계를 형성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NK 문제와 아르메니아의 오스만터키의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 주장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터키의 친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계는 언어, 문화, 인종 및 종교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터키-아제르바이잔 간 우호외교 관계의 형성에 아제르바이잔 독립 직후 집권한 엘치베이 대통령의 친터키주의 성향이 큰 역할을 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엘치베이가 탈CIS 및 친터키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러시아의 경각심이 커짐으로써, 러시아는 NK 문제에 있어서 아르메니아를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엘

치베이의 친터키주의 성향으로 인한 아제르바이잔의 국내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들 수 있겠으나, 이밖에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밀착 관계 형성으로 인해 러시아의 우려가 증가되었으므로 남카프카스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NK 문제의 발생으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충돌이 불가피했고, 이 과정에서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러시아는 보다 더 친러시아적 성향을 보이는 아르메니아의 후원자 역할을 맡았다. 터키는 대 남카프카스 관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러시아의 반발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제한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한계성을 떨쳐버릴 수 없다. 터키의 대 아제르바이잔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BTC 파이프 라인이다. BTC 파이프 라인은 아제르바이잔과 터키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 줄 뿐 아니라 EU와 미국의 지지와 관심을 유발시키고 동시에 러시아를 견제하게 만드는 일종의 생명선이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아르메니아 간의 관계 정상화에 불만을 느껴 친러시아 접근 정책을 취하려는 태도를 일부 보이기는 했지만 BTC 라인의 활용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아제르바이잔이 친러시아 일변도 정책을 취하게 된다면 구소련 시대와 같이 러시아에 종속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제르바이잔은 친터키 정책과 함께 친러시아 정책을 동시에 취하는 균형 외교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터키 정부가 아르메니아와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터키 대통령이 아르메니아의 에리반을 방문했으며 뿌리히 외교 정상화 방안에 가서명을 했던 것이다. 터키-아르메니아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은밀히 진행된 사전 교섭은 아르메니아 국민과 정치권에서 논란과 당혹감을 불러 일으켰다. 터키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하나의 민족- 두 국가"라고 강조하며 터키-아르메니아 관계 정상화는 NK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진행할 뜻을 밝혔다. 현재, 터키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유대 관계 유지를 추구하는 동시에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정상화 방안을 실현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터키는 아르메

니아와의 관계 정상화가 남카프카스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화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해법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터키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제르바이잔 정치권은 우선적으로 NK 문제 해결을 터키-아르메니아 관계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터키가 외교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역방향으로 나아가는 두 국가를 조정(調停)하려는 터키의 외교적 시도가 커다란 무리 없이 성공할지에 대한 의문이 터키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정치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대성, 중앙아시아 사회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 김연규, “ 아르메니아 문제와 아르메니아 균형외교의 한계”, 중소기업, 통권 120호 2008/2009 겨울.
- 류광철, 아제르바이잔, 21세기북스, 2009.
- 장병옥,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과 국제관계, 중동연구,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NO: 25-1, 2006.
- Aydın, Mustafa, "Türkiye'nin Orta Asya Kafkaslar Politikası", *Küresel Politikada Orta Asya*, Nobel Yayını, Ankara, 2005.
- Babalı, Tuncay, *Caspian Energy Diplomac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Dış Politika Enstitüsü*, Ankara, 2006.
- Böltkbaşı, Süha, "Ankara's Baku-Centered Transcaucasia Policy: Has it Failed?", *Middle East Journal*, Vol. 51, No 1, 1997.
- Cooper, Belinda and Akcam, Taner, "Turks, Armenians and the "G-Word", *World Policy Journal*, Vol.22, Issu 3, Fall, 2005.
- Fuller, Elizabeth, "Aliyev in Turkey",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News Briefs* 3, No:7, Feb. 1994.
- Oran, Baskın, *Türk Dış Politikası*, Cilt II, İletişim Yayını, 2004.
- Kasım, Kamer, "The Nagorno-Karabakh Conflict, Caspian Oil and Regional Powers", *The Politics of Caspian Oil*, London, 2001.
- Kasım, Kamer, *Soğuk Savaş Sonrası Kafkasya*, Usak Yayınları, Ankara, 2009.
- kasım, Kamer, Türkiye'nin Kafkasya politikası: Fırsatlar ve Güvenlik Problemleri, *Türkiye Dış Politikası*, USAK, Ankara, 2009-1.
- kasım, Kamer, "Turkey-Azerbaijan-Armenia Triangle", *Journal of Turkish Weekly*, 27 Mayıs 2009-2.

Smolansky, O. M., "Russia and Transcaucasia: The Case of Nagorna-Karabakh", A.Z. Rubinstein & Smolansky(Eds.), Regional Power Rivalries in the New Eurasia, Armark, M. E. Sharpe, 1995.

Torbakov, Igor, Russia and Turkish-Armenian Normalization: Competing Interests in the South Caucasus, Insight Turkey, Vol.12, No:2, 2010.

Zaman, Amberin, "Azerbaijan Looks to Ankara", The Middle East, No:213, July 1992.

인터넷 자료

http://www.caucaz.com/home_eng/breve_contenu.php?id=367(검색일: 2010년 10월 8일)

http://tr.wikipedia.org/wiki/Ebulfez_El%C3%A7ibey (검색일: 2010년 10월 10일)

http://tr.wikipedia.org/wiki/%C4%B0lham_Aliyev (검색일: 2010년 10월 15일)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b/eav041409.shtml>, (검색일: 2009년 4월 13일)

http://www.caucaz.com/home_eng/breve_contenu.php?id=259 (검색일 2010년 7월 5일)

<http://www.ttk.org.tr/index.php?Page=Sayfa&No=99> (검색일: 2010년 10월 5일)

<http://www.rferl.org/content/article/1075779.html> (검색일: 2010년 9월 20일)

http://en.wikipedia.org/wiki/Robert_Kocharyan (검색일: 2010년 9월 25일)

<http://www.free-lebanon.com/LFPNews/2009/April/April9/April9c/april9c.html> (검색일: 2010년 9월 30일)

http://www.caucaz.com/home_eng/breve_contenu.php?id=362 (검색일:
2010년 9월 30일)

[http://www.cnnturk.com/yazarlar/yalim.eralp/seytan.ucgeni.turkiye.azerba
ycan.ve.ermenistan/39.2182](http://www.cnnturk.com/yazarlar/yalim.eralp/seytan.ucgeni.turkiye.azerba
ycan.ve.ermenistan/39.2182)(검색일: 2010년 11월 1일)



김대성

소 속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이메일 tukimds@hanmail.net

논문접수일 2010년 12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1월 20일

게재확정일 2011년 2월 7일